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피해를 먼저 배상한 뒤의 책임 분담, 항소심에서도 구상금 판결을 지켰습니다.

구상금 판결 유지

항소 기각

공동면책과 사용자 책임에 관한 항소심 판단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해율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통학버스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의뢰인은 다른 책임 주체에 대한 구상금 청구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구상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자신도 공제계약으로 보호받는 지위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배상한 이후 당사자 사이에 누가 어느 부담을 져야 하는지가 다시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사고 손해 전액이 배상되어 공동 책임자도 면책되었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책임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고를 단순한 차량 운행 중 문제로만 볼 것인지, 운행 종료 뒤 아동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해야 할 교사의 과실과 사용자 책임도 있는지 역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공동면책과 사용자 책임에 관한 항소심 판단

한 번의 사고로 흔들린 일상,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통학버스 사고 배상 뒤 이어진 책임 분담 소송. 해율은 상대방 항소를 막고 구상금 판결을 지켰습니다.

- 여러 책임자가 있는 사고에서 피해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 상대방이 자신도 보험 대상이라며 구상을 거부한다면?
- 차량 운행과 인솔자의 관리 과실이 함께 문제 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구상금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배상과 공동면책의 관계, 교사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검토하고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고에 여러 책임자가 관여했다면 보험이나 공제의 존재만으로 모든 내부 부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고 경위와 책임 지위를 구분한 소송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앞선 구상금 지급 판결이 유지된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아동 피해에 대한 직접 배상과 별개로, 먼저 배상한 주체가 다른 책임자에게 부담을 나누어 구한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 이후의 정산 분쟁에서도 구상 근거와 공동면책 범위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통학버스 사고 배상 뒤 이어진 책임 분담 소송. 해율은 상대방 항소를 막고 구상금 판결을 지켰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통학버스 사고 배상 뒤 이어진 책임 분담 소송. 해율은 상대방 항소를 막고 구상금 판결을 지켰습니다.

- 기관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다투어야 한다면?
- 구상금 1심 승소 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 피해 배상 후 내부 부담 비율을 정리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